

지역 소식 통

부안 계화면, 노인일자리
참여자 심뇌혈관 예방관리

부안군 계화면(면장 김화순)은 26일 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70명을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생활수칙과 심뇌혈관질환 뇌졸중예방에 대한 정보와 응급상황 대처법을 안내해 참여자들이 실질적인 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진행했다.

특히 심혈관질환은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으로 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 등이 있고 뇌혈관질환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등이 포함된다.

참여한 어르신은 “심뇌혈관질환 예방법들을 배울 수 있었다”며 “실제로 일상생활에 적용하면서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화순 계화면장은 “노인일자리사업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사회봉사를 하실 수 있는 뜻깊은 활동이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소방서, 음식점 주방
'K급 소화기' 설치 당부

고창소방서는 26일, 고창소방서는 음식점 주방 화재 예방을 위해 K급 소화기 설치를 당부했다.

음식점 주방은 불과 식용유를 함께 사용하는 환경으로, 기름에 불이 붙었을 때 물을 뿌리면 화재가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 또한 일반 분말소화기는 표면의 불길을 잠시 줄일 수 있으나 기름의 내부 온도를 낮추지 못해 재발화 위험이 크다.

반면 K급 소화기는 식용유 표면에 유막을 형성해 산소 접촉을 차단하고, 동시에 기름 온도를 떨어뜨려 재점화를 효과적으로 막는 장점이 있어 주방 화재에 가장 적합한 소화기로 꼽힌다.

윤기열 대응예방과장은 “작은 관심과 실천이 화재 예방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주방 환경에 맞춰 K급 소화기 설치를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주민 주도 '사회서비스 공동체' 결실

정읍시, 거리공연연합회 등 5개 공동체가 일궈낸 실질적인 변화 · 성과 공유

주민이 주도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서비스 공동체' 활동이 정읍에서 결실을 맺고 있다.

정읍시와 (사)정읍시지역활성화센터는 지난 25일 사회서비스 공동체 성과 공유회를 열고, 전북거리공연연합회 등 5개 공동체가 올 한 해 동안 일궈낸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를 나눴다.

이번 사업은 지역의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시는 공개모집과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교육·문화·돌봄·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5개 공동체를 발굴해 지원해 왔다.



이날 공유회에서는 각 공동체의 특색 있는 활동 내용이 소개됐다. 먼저 '전북거리공연연합회'는 학산고와 옛 정읍우체국 광장에서 두 차례 공연을 열어 지역 예술인과 시민이 어우러지는 문화 공간을 조성했다. 현장을 찾은 주민들은 도심 가까에서 수준 높

은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어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공간살리기' 팀은 정리수납 전문 활동가와 함께 경로당 한부모과정, 독거노인 다자녀가정을 방문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들은 단순한 정리 지원에 그치지 않고 생활관리 교육까지 병행해 대상자들이 지속적으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며 실질적인 생활 개선 효과를 거뒀다.

다문화가정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도 돋보였다. '다웃는 다(다)' 공동체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1박 2일 한국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관상 수상

해양수산과 김태욱 주무관 '새꼬막 채취 야간조업 허용으로 어업인 소득 상승' 주제 발표

부안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지난 25일 열린 2025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관상을 수상한 해양수산과 김태욱 주무관이 “새꼬막 채취 조업시간 제한은 없애고 어업인 소득을 높이고”를 주제발표로 전국 10개 자치단체와 경찰청에 장관상 수상 기관에 선정됐다.

부안군 규제혁신 사례는 부안군 관리선 정수 및 규모와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명시된 ‘양식장형 망선’은 일몰 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으로 인해, 새꼬막 수확기에 야간조업이 제한되어 생산성 저하와 양식 어업인 소득 감소를 초래했던



문제를 해결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안 곰소만 일대는 새꼬막 생산 주요 양식장으로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조업이 집중되어 조수간만의 차(물때)를 고려한 조업이 양식장 형

망선을 활용한 상시(24시) 조업체계가 필수적인 상황으로, 이 개선을 통해 새꼬막의 안정적인 수확 체계가 마련되고 야간조업을 통한 생산량 증가가 어업인의 소득 증대로 이루어졌다는 것.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제9회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성료

정읍 연지아트홀이 주민들의 뜨거운 열정과 끼로 가득 찼다. 지난 25일 열린 '제9회 정읍시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는 10개 읍면동 수강생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뽐내며 화합을 다지는 축제의 장이 됐다.

이번 행사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문화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대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직접 참여해 평소 갖고있는 기량을 마음껏 발산했다.



경연은 연지동 주민자치센터의 힘찬 난타 공연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내장상동 한국무용 △북면 힐링장구

△상교동 고고장구 △초산동 라인댄스 △수성동 순가락난타 △철보면 밤방우쿨렐레 △시기동 이랑고고장구 △갑곡면 난타 △장평동 통기타와 우쿨렐레 등 총 10개 팀이 무대에 올라 각양각색의 특색 있는 공연을 펼치며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치열한 경연 끝에 올해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상은 우아한 춤사위를 선보인 내장상동의 '한국무용' 팀에게 돌아갔다.

/정읍=김대환 기자

취약계층 권리 구제 앞장

정읍시, '생활보장·긴급지원 심의회' 개최

정읍시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민관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시는 26일 시청 단풍회의실에서 '제4회 정읍시 생활보장 및 긴급지원 심의회'를 열고, 가족관계 해체 인정 등 취약계층 권리 구제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심의회에는 민간 전문가들 비롯해 사회복지 관련 기관 관계자, 공공위원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2007년 설치된 이 심의회는 취약계층의 권리 구제를 목표로 기초생활보장 사항에 대해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심의함으로써,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저소득 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회의에서는 △가족관계 해체 인정 및 보장 비용 징수 제외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적정성 심의 △정읍시 생활보장 및 긴급지원 소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보고 등 3가지 안건이 다뤄졌다.

구체적으로는 긴급지원 사후 적정성 23건, 가족관계 해체 인정 및 보장비용 징수 제외 4건, 소위원회 심의·의결사항 21건 등 총 238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생계가 막막한 이웃에게 적절한 지원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수시로 심의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화수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도움이 절실한 시민에게 신속하고 책임 있는 지원을 제공해왔다”며 “앞으로도 복지 전달체계 혁신에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4억 투입 260곳에 LED 가로등 설치

정읍시가 시민들의 안전한 밤길 조성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읍·면·동에서 접수된 취약 지역 260곳을 대상으로 총 4억원을 투입해 고효율 LED 가로등과 보안등을 설치·정비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 도입되는 LED 가로등은 기존 조명 대비 에너지 효율이 높고 수명이 길어 전기요금과 유지관리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 장점이 있다. 특히 자동 점멸기 시스템을 적용해 점등과 소등 시간의 오차를 줄이고 고장률을 낮춤으로써,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야간 조명 운

영이 가능해졌다.

시는 이번 LED 교체 및 설치 사업이 완료되면 시민들의 야간 보행 안전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어두운 골목길이나 사각지대를 밝게 비춰 우범지대를 해소하고, 각종 야간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현재 정읍시는 약 2만7000여개의 가로등과 보안등을 관리하고 있다. 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신규 설치와 노후 시설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2026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가동

고창군농업기술센터가 2026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기후변화 영향이 큰 고추 재배 농가의 안정 생산을 위해 500여명을 대상으로 총 3회 교육을 진행한다. 12월10일은 온정나눔터(상하면 소재), 12월12일과 12월16일은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교육장에서 진행한다.

고창군은 올해 교육을 보다 실질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와 농업기술센터 내부강사를 병행한 이중 강의 체계를 구축했다.

외부강사는 최신 재배기술, 병해충방제, 기후변화대응기술 등 전문성이 요

구되는 핵심 내용을 담당하고, 농업기술센터 내부강사는 농약허용기준강화(PIS)교육, 지역의 특성, 농가의 실제 사례 기반 현장중심 실용기술을 중심으로 교육을 맡게 된다.

이를 통해 농가가 실제 영농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최신 농업기술과 정책 동향까지 함께 전달하는 균형 잡힌 교육체계를 완성했다.

본 교육은 2026년 2월부터 읍면 상당수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읍면 특화별 중심 교육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